

## 韓日 수출규제 시 철강산업 영향 점검

### 주요 이슈와 결론

- 일본의 한국향 철강 수출 규제가 강화되어도 영향은 제한적. 철강은 글로벌 공급과잉으로 중국산 대체재가 있고 일본 주요 철강사들 CP기업으로 특별일반허가 수출 가능(한국시장 일본산 M/S 10%)
  - 한국의 일본향 수출 어려워져도 수입 일본산 대체 및 동남아로 대응(한국생산 일본향 수출 비중 5%)
  - 전기로 부자재인 전극봉은 전량 수입되고 일본산 비중 52%로 높음. 일본의 한국향 수출 규제 강화 시 중국, 인도에서 대체 수입으로 대응. 원가는 단기적 상승할 수 있으나 조업차질 가능성 극히 제한적
- ### 산업 및 해당기업 추가전망
- 한국과 일본간 상호 철강 수출규제가 강화되어도 양국 모두 중국과 동남아를 활용할 여지가 높음
  - 규제 강화 시, 열연을 생산하는 POSCO와 현대제철의 국내 시장입지 강화 기대

### 중국산 수입 증가, 수요 증가하는 동남아향 수출 확대로 韓日 수출 규제 강화 시 영향 제한적

한국은 작년 일본산 철강재 약 540만톤, 일본은 한국산 약 380만톤을 수입하였다. 한국 내수시장에서 일본산 점유율은 10%, 일본에서 한국산 점유율은 6% 수준이다. 한국의 일본산 의존도가 일본의 한국산 의존도보다 더 높지만 일본 정부의 수출 규제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판단된다. 그 이유는 1) 대부분의 철강재는 일본 정부가 규정하는 전략물자에 해당되지는 않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2) 일본 대형 철강업체들은 CP기업으로 등록(일본 경제산업성에서 공개된 632개 CP기업에 JFE와 고베제강 포함)이 되어 있어 특별일반허가 대상으로 한국향 수출이 가능하며, 3) 중국산 대체재가 존재하기 때문이다. 품목별로는 열연강판(주수요처 냉연업체 및 강관업체)이 국내시장에서 일본산 점유율 14%(2018년 기준)으로 가장 높고, 중후판(주수요처 조선사)이 9% 순서이다.

한편 작년 한국의 (조강) 생산량 대비 일본향 철강 수출 비중은 5% 수준이며 품목별로는 열연강판, 냉연강판, 아연도, 중후판 순서로 비중이 크다. 일본향 수출이 어려워지더라도 열연강판과 중후판은 일본 수입산을 대체할 것으로 기대가 되고 냉연강판과 아연도강판도 수요가 크게 증가하고 있는 동남아를 염두에 둔다면 그 영향은 제한적으로 판단된다.

### 전기로 부·원재료 전극봉, 철스크랩 일본 비중 높지만, 수입 대체로 생산차질 가능성 제한적

원부자재를 점검해보면 전기로 조업 시 사용되는 소모품인 전극봉은 일본산 점유율이 상당히 높다. 한국은 전량 수입에 의존하는데 작년 수입량의 약 4.4만톤 중에서 일본산 2.3만톤, 중국산 1.3만톤으로 일본산 비중이 52%에 달하였다. 하지만 일본 정부의 한국향 수출 규제가 강화되더라도 일본 최대 전극봉 업체인 쇼와덴코는 CP기업으로 특별일반포괄허가 대상이고 중국과 인도에서도 일본재를 대체할 수 있는 것으로 파악되어 전극봉을 조달 차질로 전기로에서 생산에 난항을 겪을 가능성은 낮다고 판단된다. 방대탄소 등 중국의 대형 전극봉 업체들의 생산 품질은 크게 개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전기로의 주원료인 철스크랩은 국내 사용량(자기발생 제외)에서 일본산 비중은 16% 정도이나 러시아와 미국산 구매확대로 대체 가능한 것으로 파악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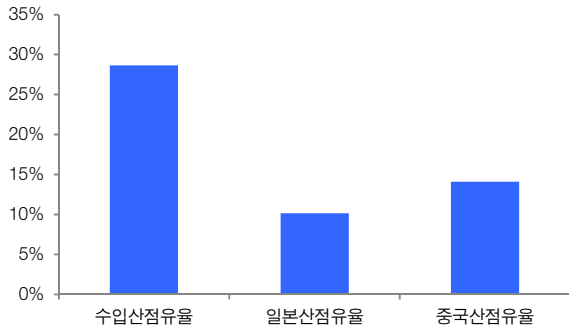
다만 전극봉이나 철스크랩의 가격은 단기적으로 상승하고 전극봉의 경우 사용 효율이 낮아지면서 전기로의 원가 상승요인이 일시적으로 발생할 수 있다.

Analyst 박현욱

02) 3787-219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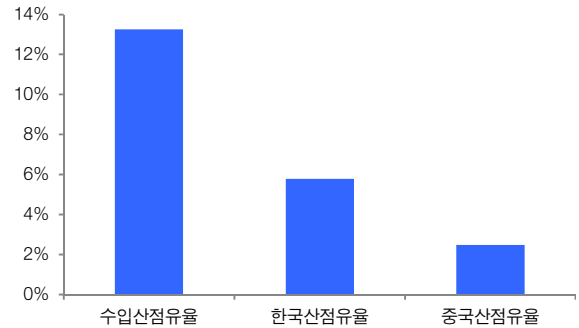
hwpark@hmsec.com

〈그림1〉 한국 철강 내수시장에서 수입, 일본산 점유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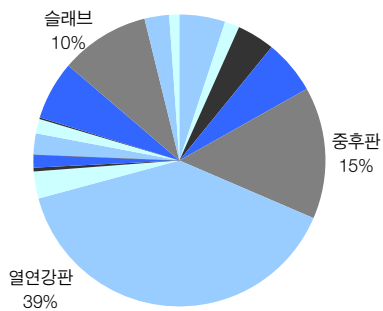
주 2018년 기준  
자료: 한국철강협회, 현대차증권

〈그림2〉 일본 철강 내수시장에서 수입, 한국산 점유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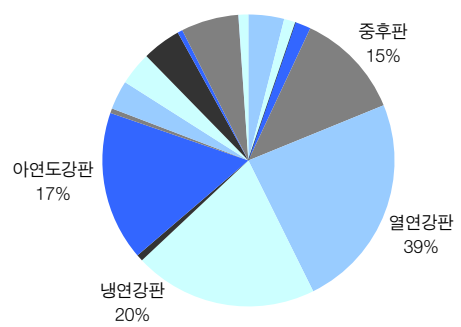
주 2018년 기준  
자료: 일본철강협회, 현대차증권

〈그림3〉 한국의 일본산 철강 수입, 품목별 비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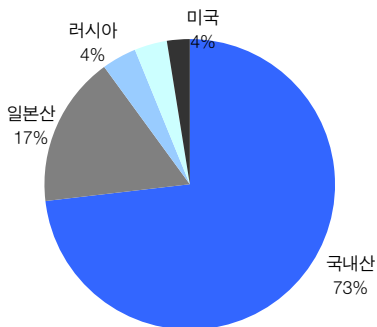
주 2018년 기준  
자료: 한국철강협회, 현대차증권

〈그림4〉 한국의 일본향 철강 수입, 품목별 비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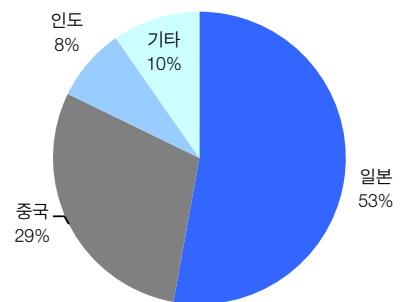
주 2018년 기준  
자료: 한국철강협회, 현대차증권

〈그림5〉 한국의 철스크랩 국내산, 수입산 비중



주 2018년 기준  
자료: 한국철강협회, 현대차증권

〈그림6〉 한국의 전극봉 수입, 국가별 비중



주 2018년 기준  
자료: 한국철강협회, 현대차증권

〈그림7〉 일본의 White List와 Black List 국가 (한국 제외 전 기준)

일본 White List 국가									
	아일랜드		스웨덴		핀란드		룩셈부르크		영국
	스페인		프랑스		아르헨티나		이탈리아		체코
	벨기에		캐나다		오스트리아		덴마크		불가리아
	오스트레일리아		네덜란드		독일		폴란드		뉴질랜드
	그리스		노르웨이		포르투갈		대한민국		스위스
	헝가리		미국						
일본 수출 제한 Black List 국가									
	아프가니스탄		남수단		중앙아프리카공화국		이라크		수단
	소말리아		레바논		리비아		북한		콩고민주공화국

자료: 일본 경제산업성, 한대치증권

〈표1〉 일본의 전략 물자 수출 통제 목록

관련 항	통제 종류	통제 품목 분류		
		군용품목	무기류	
1	전략물자 통제	산업용 전략물자 (이중용도 품목)	WMD 관련	원자력
2				화학무기
3				생물무기
3-2				미사일
4				첨단 소재
5			재료 가공	
6			전자	
7			컴퓨터	
8			통신 / 정보보안	
9			센서 및 레이저	
10			항법장치	
11			해양	
12			항공우주 / 추진	
13			무기류 제외 기타 군용품목	
14			민감 품목	
15				
16	비전략 물자 통제	1~15항에 포함되지 않은 품목 Catch-All 제도 적용 (특정 경우 통제)		

자료: 전략물자관리원, 한국무역협회, 한대치증권

〈표2〉 White List제외에 따른 변경 사항

구분	전략물자				비전략 물자
	주요 내용	유형	처리기간	제출서류	
White List 국가	일반포괄허가	평균 1주일	2종	3년	Catch-All 미적용
일반 국가	개별허가	90일 이내	3종+ $\alpha$	6개월	Catch-All 적용
	특별일반포괄허가 (CP기업만 기능)	평균 1주일	2~3종	3년	Catch-All 적용

자료: 기획재정부, 현대차증권

▶ Compliance Note

- 조사분석 담당자는 해당종목과 재산적 이해관계가 없습니다.
- 동 자료는 기관투자자 또는 제3자에게 사전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
- 동 자료에 언급된 종목의 지분을 1%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 동 자료에 언급된 종목의 유가증권(DR, CB, IPO, 시장조성) 발행과 관련하여 지난 6개월간 주권사로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 이 자료에 게재된 내용들은 자료작성자 박현욱의 의견을 정확히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 없이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 투자 의견 분류

- ▶ 업종 투자 의견 분류 현대차증권의 업종투자 의견은 3등급으로 구분되며 향후 6개월간 업종 펀더멘털과 업종주기의 전망을 의미함.
  - OVERWEIGHT : 업종 펀더멘털의 개선과 함께 업종주기의 상승 기대
  - NEUTRAL : 업종 펀더멘털상의 유의미한 변화가 예상되지 않음
  - UNDERWEIGHT : 업종 펀더멘털의 악화와 함께 업종주기의 하락 기대

- ▶ 현대차증권의 종목투자 의견은 3등급으로 구분되며 향후 6개월간 추천기준일 종가 대비 추천종목의 예상 상대수익률을 의미함.
  - BUY : 추천일 종가 대비 초과수익률 +15%P 이상
  - MARKETPERFORM(MPERFORM) : 추천일 종가 대비 초과수익률 -15%~+15%P 이내
  - SELL : 추천일 종가 대비 초과수익률 -15%P 이하

▶ 투자등급 통계 (2018.07.01~2019.06.30)

투자등급	건수	비율(%)
매수	148건	89.16%
보유	18건	10.84%
매도	0건	0%

- 본 조사항목은 투자자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정보를 제공할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당사의 사전 동의 없이 무단복제 및 배포할 수 없습니다.
-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가 신뢰할 만한 자료 및 정보로 얻어진 것이나,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으므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최종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 본 자료는 어떠한 경우에도 고객의 주식투자의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